

꽃샘낙뢰? ...광주·전남 이틀간 무려 8094회

지역민들 불안...5년간 3월 평균 광주 0.8회·전남 126회

고흥·영광·신안서 주택·전신주 화재 피해...예측 어려워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역대급인 8094회의 낙뢰가 쏟아져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번 낙뢰는 대기 상층과 하층의 급격한 온도차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수직으로 적란운(소나기 구름)이 높게 발달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적란운 주변에서 방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낙뢰' 또는 '번개'라고 하는데 적란운 하단에서 지면까지 발생한 방전현상을 낙뢰, 적란운안에서 일어나는 불꽃 방전 현상을 번개라고 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에

서는 총 104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무려 7874회의 낙뢰가 쏟아졌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3월 한달 낙뢰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4회, 전남 631회 등 3월 평균 광주 0.8회, 전남 126.2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올해 3월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 122회, 전남 7972회 등 총 8094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갑자기 낙뢰가 쏟아지면서 전남에선 낙뢰 관련 화재도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영광군 불갑면 주택에서 불이 나 89㎡ 중 50㎡를 태우

고 출동한 119에 의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낙뢰를 맞은 주택 외벽 배선에 불꽃이 일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밤 10시 13분께에도 고흥군 금산면 주택에서 낙뢰가 화재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66㎡ 규모 주택 일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44분 신안군 압해읍의 한 냉장창고와 이날 오후 7시52분 영암군 삼호읍 도로 전신주에도 낙뢰가 떨어지면서 불꽃이 발생하는 등 낙뢰로 인한 화재가 이어졌다.

낙뢰의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지역별 상세한 예보는 불가능하며, 대기상태를 고려한 뒤 통보문을 통해 개략적으로 설명

은 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올 봄에도 기상이변에 가까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해영 기상청 낙뢰관측망 담당은 "낙뢰의 경우는 매우 좁은 구역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해 소멸하는 기상현상"이라며 "낙뢰는 대기 중의 불안정도가 높을 경우 발생해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미리 예측하는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소준영 방장은 "낙뢰가 칠 경우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뾰족하고 긴 물건은 멀리해야 한다"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기자 young@

낙뢰 집계방식 어떻게

27억원 '첨단시스템' 전국 21곳 감지·전송

지난 4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집중 낙뢰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상청의 낙뢰 집계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독일의 Nowcast사로부터 도입한 낙뢰관측장비 LINET(Lightning Detection Network)시스템을 활용해 낙뢰 횟수 등을 집계하고 있다.

기상청은 앞서 지난 1987년 LLP(Lightning Location and Protection)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낙뢰현상을 관측하고 업무에 활용했으나, 장비 노후화에 따라 LINET시스템으로 교체했다.

LINET시스템은 여수 등 전국 21개소에 대지(땅)방전과 구름방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형 센서 설치, 통합운영시스템, 분석표출시스템, 서버모니터링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27억3000여만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LINET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감지한 낙뢰의 발생시각과 위치 극성(+, -), 강도, 고도 등을 기상청 통합운영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상청은 낙뢰 발생시 여수, 흑산도, 완도 등 전국 21곳의 낙뢰관측망에 설치된 LINET시스템의 일체형 센서를 이용해 한반도 내륙지역에서 관측된 낙뢰 발생 지점을 계산하고 있다.

이때 5곳 이상의 낙뢰관측망에서 관측된 낙뢰만을 공식적인 낙뢰로 인정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톡’하고 티진 봄 봄비가 내린 5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내 홍매화 꽃망울에 빗방울이 맺혀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중등교원 7명 부적절 전보 인사 ‘정정 조치’

전보서열명부 조작 의혹 담당 과장·장학사 주의·경고 처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1일자로 단행한 교원 인사 일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 인사 발표 직후 중등 수학과 교원 전보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고 교사 7명에 대한 인사결과를 바로잡았다.

교원 전보는 경력, 해당학교 근무기간 등을 토대로 매겨진 전보서열명부대로 사전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인사의 경우 전보서열명부 순위대로

인사발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 부적절함을 확인한 시교육청은 전보서열명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인사업무를 맡은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장학사에 대해 감사를 거쳐 각각 주의와 경고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보 인사 순위가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서부교육지원청 측 실수라는 입장이나 전교조 측은 특정 과목 교원들에게만 일어났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

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2월 1일 정기인사발표 인사부정이 적발되고 행정착오에 의한 부적절한 전보 인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교육청은 인사 잡음에 대해 사과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부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인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빚어진 착오이지, 인사 부정은 아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바로잡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6, 해질 18:32, 달돋이 22:58, 달질 09:34

경침(驚醒)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맑음 | 2/15 | 보성 | 맑음 | -1/11 |
| 목포 | 맑음 | 1/10 | 순천 | 맑음 | 1/13 |
| 여수 | 맑음 | 2/11 | 영광 | 맑음 | -1/11 |
| 나주 | 맑음 | 0/14 | 진도 | 맑음 | 2/9 |
| 완도 | 맑음 | 3/12 | 전주 | 맑음 | 1/13 |
| 구례 | 맑음 | -2/14 | 군산 | 맑음 | 1/12 |
| 강진 | 맑음 | 1/13 | 남원 | 맑음 | -1/14 |
| 해남 | 맑음 | 0/12 | 홍산도 | 맑음 | 3/8 |
| 장성 | 맑음 | 0/13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남 | 북 | 1.0~2.0 | 북 | 0.5~1.5 |
| | 북 | 북동 | 1.5~2.5 | 북 | 1.5~2.5 |
| 남해 | 남 | 북동 | 1.5~3.0 | 북동 | 1.0~2.0 |
| | 북 | 북동 | 3.0~4.0 | 북동 | 3.0~4.0 |
| 서부 | 남 | 북동 | 3.0~5.0 | 북동 | 3.0~4.0 |
| | 북 | 북동 | 3.0~4.0 | 북동 | 3.0~4.0 |

생활지수

| | |
|------|----|
| 높음 | ☀️ |
| 높음중 | ☁️ |
| 매우높음 | ☔️ |
| 감기 | 👤 |
| 좋음 | 🌈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10:09 | 05:05 |
| 여수 | 간조 | 만조 |
| | 05:40 | 11:52 |

주간 날씨

| 7(수) | 8(목) | 9(금) | 10(토) | 11(일) | 12(월) | 13(화) |
|------|------|------|-------|-------|-------|-------|
| ☁️ | ☔️ | ☀️ | ☀️ | ☀️ | ☀️ | ☀️ |
| 2/12 | 4/7 | 2/8 | -1/11 | 0/13 | 2/14 | 3/15 |

목포대 총장 공백사태 장기화 우려

1순위 후보 연구비 횡령 혐의에 자적 논란...임명 미뤄져

목포대학교 신임 총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총장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목포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7대 최일 총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김상재 교무처장이 총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7일 총장 후보자 선거를 통해 5명의 후보자 중 1순위로 이성로 건축·토목공학과 교수(50.1%)와 2순위로 박민서 사회복지학과 교수(49.98%)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통상 2월 말까지 총장 임명 절차를 마쳐왔으나 목포대와 군산대, 교대 등의 총장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대 관계자는 "총장선거추진위원회가 2월 둘째 주에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교육부로부터 아직 인사 시점 등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포대에서는 총장 선거 후 1순위 후보인 이 교수가 2010년 연구비 1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적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목포대 측은 총장선거 규정상 피선거권자를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안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등산 일대 야생동물 불법포획 여전

울무 30여개 제거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5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 3일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일원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합동 엮구 수거 행사를 진행해 울무 30여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철근 등으로 만들어진 울무는 동물의 생태통로와 나무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었다. 동물들이 울무에 걸리면 고통을 신음하다 죽게 된다.

국립공원에서 화약류·땃·울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명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줄,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